

## | 이달에 만난 사람 |

●●● 유무상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기술부장

### 양계인들의 수익창출과 등급제 내실화와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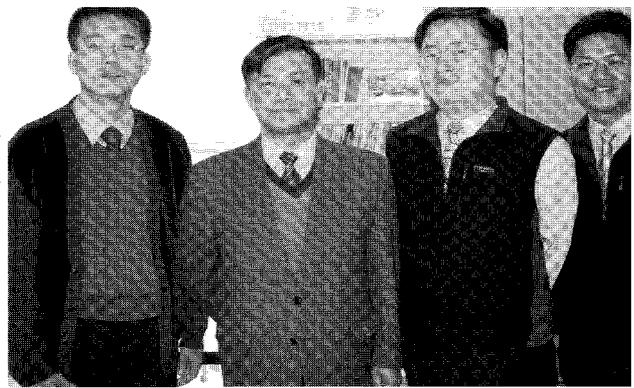
#### ▲ 유무상

영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졸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석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호남지역본부장  
축산물등급판정소 홍보전산부장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기술부장(현)

지난 2001년 12월 12일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현 한국양계농협)에서 계란등급판정시범사업이 처음 실시되면서 양계분야에 등급판정사업이 실시된 이후 2003년 4월에는 닭고기에서, 금년 2월 14일부터는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까지 확대되면서 양계산물 등급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양계산물 등급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착에 주력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유무상 등급기술부장을 만나 본 사업의 현황과 정착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현재 계란, 닭고기 등급판정 현황은?

계란은 지난 2001년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3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2004년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양계농협 대구집하장을 비롯해 9개소(공주남산양계, 한국양계남부집하장, 오경농장, 부림농장, (주)조인, 금강농장, 양주골 축산, 소백양계)에서 계란등급판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일 5천개를 판정하던 것이 2004년에는 1일 약 30만개로 늘어났고 금년 3월에는 50만개까지 늘면



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는 총 103,878,041개의 계란에 대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닭고기는 2003년 4월 체리부로를 시작으로 농협목우촌계육가공공장, 하림, 우림인터가 참여하면서 4곳에서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병행, 실시하면서 학교 등 소비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리물량을 보면 2003년도에는 1일 평균 1,281수를 판정하던 것이 2004년에는 4,324 수로 4.5배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수요처가 늘어나면서 판정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등급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 품질이 좋은 양계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를 확대시키고 생산자들의 수익을 높여 전체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홍보와 이해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희망업체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참여율이 낮을 뿐 아니라 국내 유통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초창기 계란등급판정을 하는데 양적인 확대에 치우치다 보니 도중에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할인 마트 등에서 세일기간에 일반란은 물론 등급란까지 세일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꾸준한 홍보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등급란이나 등급 닭고기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등급판정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나 업체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계란, 닭고기 등급제 정착 방안은?

그동안 본소에서는 다각도로 등급제를 알리기 위해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계란등급제가 시작된지 3

계란, 닭고기 등급판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부 직원들(좌부터 김관태 팀장, 유무상 부장, 안성섭 과장, 원경환 대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홍보강화에 더욱 박차를 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한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 교육, 소비자 교육,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 참여 등을 통해 양계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계란등급판정 운영에 있어서도 양적인 확대 보다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등급판정 시행을 원하는 작업장에 대해 자격조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화를 기해 갈 것입니다.

닭고기 및 부분육 사업은 그동안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자세한 내용을 홍보해 왔고, 학교 개학에 맞추어 학교급식용과 대형 마트 등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회를 거쳐 정규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계란은 수의자 부담원칙에 의해 2003년부터 개당 0.5원의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는 시범사업 기간이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아직은 징수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징수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계인들도 고품질의 양계산물 생산과 소비확대를 통해 양계산업이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정리 | 김동진 팀장)